

강정호, 선수들이 뽑은 NL 신인왕 3위

126경기 타율 0.287·15홈런·58타점·60득점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선수들이 뽑은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신인왕 투표 3위를 차지했다.

강정호는 27일 미국 스포팅뉴스가 167명의 내셔널리그 선수를 상대로 진행한 '올해 내셔널리그 최고의 신인' 투표에서 5표를 얻어 3위에 올랐다.

1위는 127표의 압도적인 표를 받은 시카고 컵스의 내야수 크리스 브라이언트, 2위는 22표를 받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내야수 맷 페피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무대를 처음 밟은 시즌 12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 60득점을 기록하며 확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활약을 인정받아 내셔널리그 7월의 신인으로도 뽑혔다. 그러나 지난달 18

일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유격수로 병살 플레이를 펼치다 주자의 과격한 슬라이딩에 왼 무릎을 크게 다쳐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다.

1위의 영예를 차지한 브라이언트는 올 시즌 15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5, 26홈런, 99타점의 성적을 남겼다. 페피다는 149경기에 나와 타율 0.295, 12홈런, 77타점을 기록했다.

강정호에 이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외야수 잭 피더슨, 시카고 컵스의 외야수 카일 슈와버가 각각 3표를 얻어 공동 4위에 올랐다.

스포츠뉴스는 1946년부터 올해의 신인을 자체 선정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올해의 신인은 기자단 투표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캠프가 28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25일 본격적인 마무리 캠프에서 앞서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캠프 선수단.

“1군에서 뿔 호랑이 키우겠다”

KIA, 日 마무리캠프 돌입

신인·예비역 등 44명 참여

체력·기술 부문 훈련 진행

‘호랑이 군단’의 마무리캠프가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가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마무리 훈련에 돌입한다.

김기태 감독이 지휘하는 캠프 선수단은 코칭스태프 11명과 투수 13명, 야수 17명, 포수 3명 등 총 44명이다. ‘이적생’ 전현태(29)가 최병연과 캠프 최고감독 역할을 맡게 됐으며, 부활을 꿈꾸는 한기주(28)는 투수조 ‘만형’으로서 캠프에 참가한다.

내년 시즌 KIA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뛰어드는 2016 신인 최원준(내야수), 이진영·이승우(이상 외야수), 신범수(포수)도 생애 첫 캠프를 기다리고 있다. 신인 투수들은 오버 페이스로 인한 부상 우려 때문에 마무리 캠프 명단에서 제외됐다.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마운트 기대주 김운동과 경찰청에서 제대한 홍재호 등 두 명의 예비역도 캠프에서 새출발을 한다. 차세대 포수로 기대를 모았던 또 다른 예비역 한승택은 부상으로 캠프 참가가 불발됐다. 한승택은 애리조나 교육리그 경기 도중 강속구에 머리를 맞으며 부상을 입었다. 사구 후 유증으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선수단은 28일 오전 출국해 내달 28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 등지에서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기술 및 전술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등 체력훈련을 할 계획

이다.

신인 선수들은 내달 1일 캠프에 합류한다. 프리미어12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대표팀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좌완 심동섭과 우완 홍건희는 상비군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키나와로 건너갈 예정이다. 오키나와 캠프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은 광주와 함평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김기태 감독에게는 고향팀에서의 두 번째 마무리 캠프다. 이미 구성되어있던 캠프 선수단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캠프에서는 직접 구성한 선수단을 지도하며 내년 시즌 가능성을 엿본다.

김기태 감독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잘해줘야 한다. 교육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온 선수들도 있고 기대가 크다. 체력적인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의 훈련도 진행한다. 경쟁자들을 만들고 1군에 뿔 수 있는 선수들을 키워내도록 하겠다”고 캠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참가 선수 명단

▲감독:김기태 ▲코칭스태프(10명):조계현 박홍식 김태용 김민호 김중국 홍세원 유동훈 이대진 박종하 나카무라 ▲투수(13명):한기주 정용운 임기준 유창식 한승택 김운동 박준표 김명찬 이준영 박동민 최현정 심동섭 홍건희 ▲포수(3명):배용환 이흥구 신범수(신인) ▲내야수(11명):전현태 최병연 홍재호 윤완주 고영우 이인행 정상교 백세웅 박찬호 박진두 최원준(신인) ▲외야수(6명):노수광 오준혁 이정현 전은석 이진영(신인) 이승우(신인)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박인비, 세계 1위 되찾으려 간다

29일 개막 LPGA 블루베이 대회서 리더와 고와 격돌

세계랭킹 2위로 밀린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블루베이 대회(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반격을 준비한다. 박인비는 지난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스타챔피언십에 출전하느라 같은 기간 열린 LPGA 투어 푸본 타이완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 사이 올 시즌 박인비와 접전을 벌이는 리더인 고(18)가 LPGA 투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내줬다.

시즌 5승을 수확한 리더인 고는 세계랭킹과 시즌 상금, 시즌 평균타수, 다승 부문에서 1위 자리에 올라 박인비(LPGA 투어 4승)를 따돌리고 한발짝 앞서 나갔다. 하지만 박인비도 국내 대회에서 얻은 것이 있다. 바로 올 시즌 중반 이후 흔들렸던 퍼트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박인비는 지난주 국내 대회를 공동 2위로 마친 뒤 “이 대회에서 3퍼트를 두차례

밖에 하지 않았다. 퍼트 감각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29일부터 나흘간 중국 하이난섬 지안 레이크 블루베이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리더인 고도 출전해 1인자 경쟁이 재개된다. 지난해 처음 열린 이 대회에서 리더인 고는 공동 7위에 올랐고, 박인비는 출전하지 않았다.

매 대회 1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박인비는 정자 태연했다.

박인비는 “어차피 시즌이 끝날 때까지 리더인 고와 맞붙어야 한다”며 “이제 2위로 밀려났으니 따라가는 재미로 시즌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신인 포인트 1위를 달리는 김세영(22·미래에셋), 2위 김효주(20·롯데)를 비롯해 세계랭킹 5위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등이 출전해 우승 경쟁을 벌인다.

연합뉴스



다승왕·상금왕 전인지 6승 노린다

30일 서울경제골프 출격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다승왕과 상금왕을 굳힌 전인지(하이테크)가 서울경제·문영컨즈파크 레이드 클래식(이하 서울경제골프)에서 투어 7년 만의 6승에 도전한다.

전인지는 30일부터 경남 거제 드비치 CC(파72·6482야드)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서울경제골프에서 2주 연속 우승 사냥에 나선다. 전인지는 지난주 KB금융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시즌 5승으로 다승왕을 눈앞에 뒀다. 상금 부문에서도 총 9억1000만원의 벌어들여 2위 박성현(넵스)과의 격차를 2억7000만원으로 벌이며 상금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즌 5승을 올렸지만 연속 우승이 없는 전인지는 지난 대회가 끝난 뒤 “새로운 목표는 2주 연속 우승”이라며 이번 대회 우승컵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전인지가 서울경제골프에서 우승하면 시즌 6승을 달성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김효주(롯데)

의 5승을 뛰어넘는 것으로 2008년 서희경(하이테크)이 6승을 따낸 이후 7년 만이다. 한 시즌 다승으로는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한다. 신지애가 2007년과 2008년 각각 9승과 7승을 올린 바 있다. 또 우승 상금이 1억원에 달해 총 상금은 10억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 시즌 10억원 돌파는 지난해 김효주(12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전년도 우승자 허윤경(SBI저축은행)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시즌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전도 예상된다.

박성현이 시즌 4승을 향해 샷을 담급질하고, 이정민(비씨카드)이 상금 순위 2위 탈환과 시즌 4승에 도전한다. 지난 대회에서 전인지에 1타차로 밀려 생애 첫 우승의 기회를 날렸던 김해림(롯데)도 다시 우승을 위한 샷을 준비한다. 또 이번 대회를 끝으로 상금 순위가 60위 이내에 들면 내년 투어 시드권이 주어질 상금 순위 중하위권 선수들의 막바지 각축전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터치다운을 향하여...

2015 미국프로풋볼 내셔널퍼런스 서부지구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아메리칸퍼런스 북부지구 볼티모어 레이브스의 정규시즌 7주차 경기에서 카디널스의 러닝백 크리스 존슨이 볼티모어 레이브스의 수비진을 뚫고 터치다운을 향해 달리고 있다. 카디널스는 크리스 존슨의 활약으로 26대 18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샤프트 몸에 대는 퍼팅 금지

美골프협회, 2016 규칙 개정

‘보조기구 사용’ 실격→2벌타

샤프트를 몸에 대는 퍼팅 금지, 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벌타 규정 등을 담은 2016 개정판 골프규칙이 발간됐다.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골프규칙을 제정하는 R&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최근 4년간 바뀐 규칙을 담은 규정집을 27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샤프트 끝부분을 배나 가슴에 고정시켜 스트로크하는 이른바 ‘앵커드 퍼터’의 사용 금지다. 이 퍼터는 샤프트의 길이가 일반 퍼터보다 길어 ‘롱퍼터’, ‘빗자루 퍼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두 골프단체는 이같은 퍼팅 스트로크를 2016년 1월 1일부터 금지한다. 샤프트가 길더라도 몸에 닿지 않으면 이 규칙에 적용받지 않는다. 경기 도중 선수가 보조기구를 사용했을 경우 바로 실격시키는 대신 2벌타를 주는 것으로 벌칙이 경감된다. 단 2벌타를 받고도 선수가 계속 보조기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격된다.

또한 규칙 위반 사실을 몰라 벌타를 스코어카드에 적어내지 않았을 때는 ‘스코어카드 오기’로 실격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 규칙은 2012년 마스터스골프대회 때 타이어 우즈(미국)에게 적용돼 논란이 됐다. 우즈는 이 대회 2라운드 15번 홀에서 세 번째 샷을 워터 해저드에 빠뜨린 뒤 1벌타를 받고 잘못된 장소에서 다섯 번째 샷을 했다. 2벌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우즈는 이를 모른 채 스코어카드를 제출했다. 나중에 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격 면제’ 조항을 적용받아 우즈는 계속 경기를 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선수가 어드레스에 들어간 뒤 볼이 움직였을 때 주어지던 1벌타 조항도 완화됐다. 선수가 볼의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1벌타를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